

# 마을 만들기에 있어 주민에 의해 표현되는 풍경 공유성\*

-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수란\* · 조동범\*\*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 Commo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Cognition in Participatory Town Design Program - Focusing on the Case of Buk-gu District, Gwangju Metropolitan City -

Kim, Su-Ran\* · Cho, Tong-Buhm\*\*

\*Bio-Housing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common characteristics in everyday landscape cognition that the residents share and to restore the resulting characteristics through citizen-participatory town design. Through the residents participatory workshop supported by the Gwangju Buk-gu District Autonomy and Citizen Academy of Gwangju YMCA, 304 people from eight administrative districts participated in three programs.

In each program, photographed landscape images representing everyday conditions of the townscape were presented in several ways: in program 1, the residents' mental map was studied; in program 2, landscape images of real places were matched to locations on a map; and in program 3, the landscapes were scored on a scale from 1 to 5 according to five descriptive categories. The elements that were recognized as common landscape features were public facilities, pedestrian spaces, school areas, and parks and natural green spaces. Additional results including recognition of the participants affection for the village and a common landscape image shared by the people, as inhabitants looked around at the space of their own lives. It seems possible that more creative townscapes can be created by residents through participatory programs.

*Key Words: Common Landscape, Citizen-participatory Town Design, Landscape Cognition Sharing*

\* : 이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바이오 하우징 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Tong-Buhm Cho, Division of Forest Resources & Landscape Architecture, Chonnam Natl' University,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2102, E-mail: tobcho@chonnam.ac.kr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결여되어 가는 도시 공동체성 보전을 위한 대안으로 시민참여형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민 층의 경관가치 및 인식 특성을 계획·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가 강조된다(三船康道와 まちづくりコラボレーション, 1998; 渡辺俊一와 太田守幸, 2001). 특히 주거 지역 스케일의 도시정비와 경관관리, 어메니티 창출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전문가에 의한 계획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 공동체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이슈나 사업에 국한된 주민참여는 단기적인 의견 청취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관이나 환경에 대한 가치 등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일상적 공간의 공공성이나 경관미 등은 공유가치라는 사회적 의의와 함께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잠재적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渡辺俊一, 2004; 조동범, 2004) 주민참여의 결과를 직접 물적 계획에 반영하기 보다는 인문·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의를 찾고 이를 주민참여 계획방법론으로 환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주민이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증시되는 마을 만들기 워크숍이나 게임 감각의 디자인 프로그램(ヘンリ-サノフ, 2000) 등 실천적 접근이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계획 이론이나 디자인 수단으로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생활 공간 속에서 주민들에게 지각되는 일상적 경관의 형성 요인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마을의 어메니티 혹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역할을 풍경 공유성<sup>1)</sup>이라는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관 인식의 사회·미학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워크숍 실행을 통해 마을의 경관 요소와 유형을 조사·분석하여 풍경 공유성 성립 요인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계획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II. 마을 만들기의 의의와 현황

### 1. 사회적 미학으로서의 마을 만들기의 의의

마을 만들기라는 주민참여 방식은 1962년 일본 나고야시 에이토 지구의 도시 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시작되어 1970년대 후반 ‘마치즈쿠리’라는 용어로 일반화되면서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한 수단이 되었다(延藤安弘, 1997). 당시는 일본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시민참여가 디자인 방법론으로 싹 트고 있었고 시민 그룹에 의한 활동도 급속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NPOまちづくり研究會, 1997). 그 배경에는 근대 이후 사적 영역으로부터 공공 영역으로의 도시 공간 확대라는 변화가 있었으며, 참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 영역이 조경의 주요 대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에 있어 조경의 역할도 점차 증시되어 갔다. 마을 만들기나 시민참여형 계획이 반드시 경관이나 시각적 요소에 관련된다고는 할 수 없어도 경관이 본질적으로 갖는 공공성을 맥락으로 하면 마을 만들기에서 경관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과 소재의 발전 등 기능적 사고의 확산에 힘입은 근대 이후 도시 형성의 진화를 경시하여온 계획·설계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도시민의 일상 행동과 삶으로서 축적해온 도시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에 눈을 뜨려는 본질적 반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佐々木葉二 등, 1995a; 1995b),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상 공간에서 그 사용자가 될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상의 미학을 키워가지 못한 상황도 또 다른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디자인에 있어 개인 이용자의 집합이 아니라 공공성에 눈뜬 성숙한 사회의 공유미학에 바탕을 둔 문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 2. 도시정비와 활성화로서 마을 만들기의 의의

유럽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1970년부터 활발히 전개되어온 신문화 운동이, 지역사회의 역사로부터 일상의 문화를 주민 스스로 탐구하고 재조명하여 지역의 뿌리에 기초하는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면에서 ‘마을 만들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주민의 일상 생활환경의 정비와 개선 활동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복지, 교육은 물론,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발전되어왔다(이용연, 2004). 우리나라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활동의 등장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지역 정체성의 모색이 마을 만들기 활동과 결합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 초기에는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행정 주도형의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시민단체에 의한 활동<sup>2)</sup>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실행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사례들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갱신해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제 구축과 사회문화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며, 공간과 그곳에 결부된 삶, 그것을 운영하는 원리를 시민 입장에서 구상하고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활동(김찬호, 1997)으로서 의의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주민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생활 공간 구조와 일상 경관에 대한 인식 특성의 조사를 위해 별도의 실험적 상황이 아닌 마을 만들기 워크숍 진행 과정과 함께 실시하였다. 포함된 프로그램으로서는 마을의 범위에 대한 인식, 마을내 경관 요소의 공간 위치 인식, 일상 경관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 1. 마을 만들기 워크숍 시행과 참가자

본 연구에서 병행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은 광주 YMCA의 마을 만들기 관련 프로그램<sup>3)</sup>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마을 만들기<sup>4)</sup>(2004년 6~10월)였으며,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8개동(두암 3동, 용봉동, 풍향동, 일곡동, 임동, 문화동, 운암 2동, 문흥 1동; 표 1, 그림 1 참조), 참가자<sup>5)</sup>는 총 304명으로서 대부분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었다. 해당 마을들은 근대기 이전부터 자연마을 형태로 입지해 오던 농업을 위주로 한 마을들이며 도시의 확대와 더불어 시가지화 진행<sup>6)</sup>된 형성 배경(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실, 1999;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2003)을 가지고 있다.

표 1. 지형과 주택지 유형에 따른 대상지 개요

주거 유형 \ 입지 특성	평탄지	구릉지	혼합
단독주택 위주	임동	풍향동	-
아파트 위주	일곡동	문흥 1동	-
혼재	문화동	두암 3동	운암 2동, 용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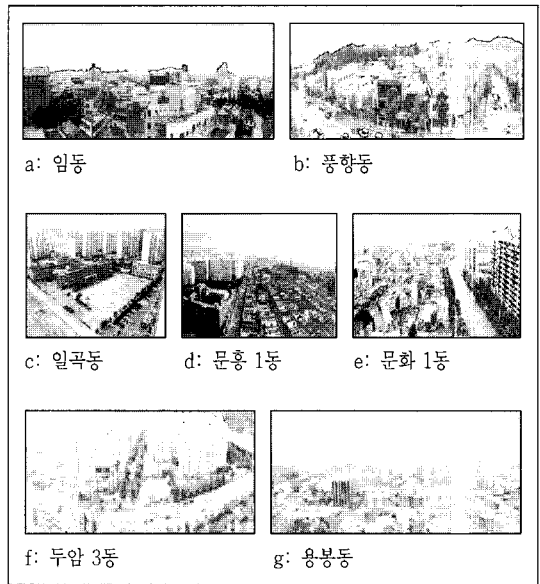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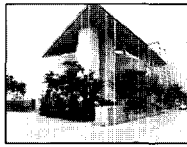
#### 2. 마을경관의 수집

마을 공간 내에서 파노라마 경관, 내부 경관, 세부 경관 등 경관 규모와 요소의 범위로 구분하고(五十嵐敬喜, 2002)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경관을 수집하였다. 개별 이미지는 워크숍시 빔 프로젝터로 투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상도를 위해 2048×1536 화소로 촬영하였으며 초점거리는 28mm로 하였다. 경관 사진의 출력은 1440dpi 잉크젯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워크숍 프로그램(프로그램 2와 3)에 따라 달리하였다. 각 경관 유형의 선정 기준은 표 2와 같으며, 그림 2는 풍향동의 경관 유형화 사례이다.

#### 3. 워크숍에 의한 일상 풍경의 공유 특성 파악

- 1) 공유공간으로서 마을의 범위에 대한 인식

표 2. 마을의 경관 규모에 따른 유형별 경관 수집 기준

규모	경관 유형 기준	사례
파노라마 경관	마을의 동의 진입로, 행정적인 동의 경계, 주변 산으로부터의 부감	
내부 경관	내부 도로 중 경관 변화 지점	
세부 경관	주택과 공공시설, 도시시설, 자연요소	

생활환경으로서의 마을 인식 범위가 행정 구역으로서의 동의 경계와 어떻게 다른가를 마을지도 그리기(그림 3 참조)를 통해 파악하고, 지도그리기에 나타난 요소의 실제 위치와의 비교(지형, 도로, 건물, 지명 등의 표현 결과와 축척 1/5,000 지도와 비교)를 통해 인식 표현상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지명은 일상적인 공간 인식을 거점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개인별 자료를 나열하여 중복도를 조사한 후 지명에 해당하는 위치를 중첩하면서 마을의 인식 범위를 파악하였다.

2) 마을내 경관 요소의 공간 위치 인식

일상 경관 구성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 인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워크숍 참가자들이 마을의 공간 구조와 경관인식 관계를 통해 풍경 공유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 선정된 경관 사진

A. 인공요소 - 주거

a: 공동주택 1  b: 공동주택 2  c: 빌라 1  d: 빌라 2  e: 빌라 3  f: 빌라 4 

g: 빌라 5  h: 빌라 6  i: 빌라 7  j: 단독주택 1  k: 단독주택 2  l: 단독주택 3 

B. 인공요소 - 도로

a: 교차로  b: 보행로  c: 간선도로  d: 골목길 1  e: 골목길 2 

C. 인공요소 - 시설물

a: 공공시설 1  b: 공공시설 2  c: 공공시설 3  d: 공공시설 4  e: 공공시설 5 

그림 2. 풍향동의 경관요소의 유형별 수집 사례



(그림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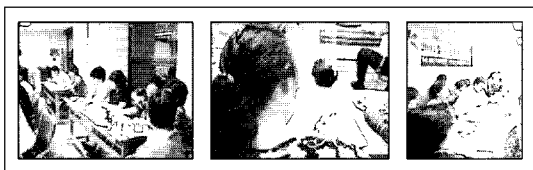


그림 3. 마을이라고 생각되는 공간 범위를 그려 경관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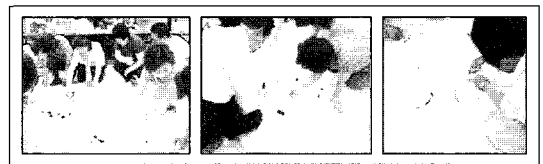


그림 4. 여러 장소의 경관사진을 확대한 대형 지도상에 대응 위치시키는 프로그램

들은 손에 들어 갈 정도(6.7×5cm)의 카드로 만들고 지형과 건물, 도로 등이 포함된 지도로 출력하여 바닥에 깔아두었다. 주민들에게 사진을 2~3장씩 나누어주고

도면 위에 올라가 경관사진에 해당하는 공간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걸리버 지도 게임 방식(こどもとまちづくり研究會, 1996)을 활용하였다(그림 4 참조).

### 3) 일상 경관 요소에 대한 평가

일상 경관 구성 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적 인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사진 경관을 카테고리화 구분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을 경관은 유형별로 가능한 고르게 마을별로 40~50개를 선정하여 17×13cm의 일정한 크기로 출력한 후 이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벽면에 배열하고 참가 주민들은 평가 등급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다(그림 5 참조). 5개의 평가 카테고리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풍경,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풍경, 소박하고 정겹다고 생각되는 풍경, 쾌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풍경,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풍경으로 선정하였으며, 평정 척도는 낮음을 1점으로 높음을 5점으로 5단계로 구분하였다. 참가자 1인에게는 25회의 평가 기회가 있었으며, 따라서 1회의 평가도 받지 못하는 경관들도 있었다. 각각의 유형별 평가점수의 합은 평가치의 비교와 카테고리별 레이더 차트로 나타내어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마을지도 그리기를 통해 나타나는 공유성

마을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분석을 위해 먼저 마을 규모와 공간 구성 및 인지도 표현상의 공통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간선도로를 강하게 의식한다는 점, 마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에 있는 시설(광주문화예술회관, 무등경기장, 삼각산, 광주천 등)을 마을 범위에 포함시켜 인지한다는 점, 지도로서 표현되는 마을 범위는 행정동의 범위에 비해 비교적 좁게 표현한다는 점 등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간 활



그림 5. 경관구성요소에 대한 카테고리별 평가 프로그램

동 범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표 3 참조). 특히 시가지만으로 이루어진 마을과는 달리 주변에 자연녹지와 산림 등이 존재하는 지역은 그 지역을 여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림 6 참조). 반면 마을의 특징과 장점을 스케치하듯 표현을 하거나,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의사 표시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마을의 중심부에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면적인 시설, 광역적이며 거점적인 도시시설(무등경기장,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방직 등)이 우세 요소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산책, 운동 공간으로서의 근린적 활용의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지명의 출현에 있어 근린 상가 시설(활성화된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는데, 여성 참가자가 많다는 점도 요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상업 공간이 공공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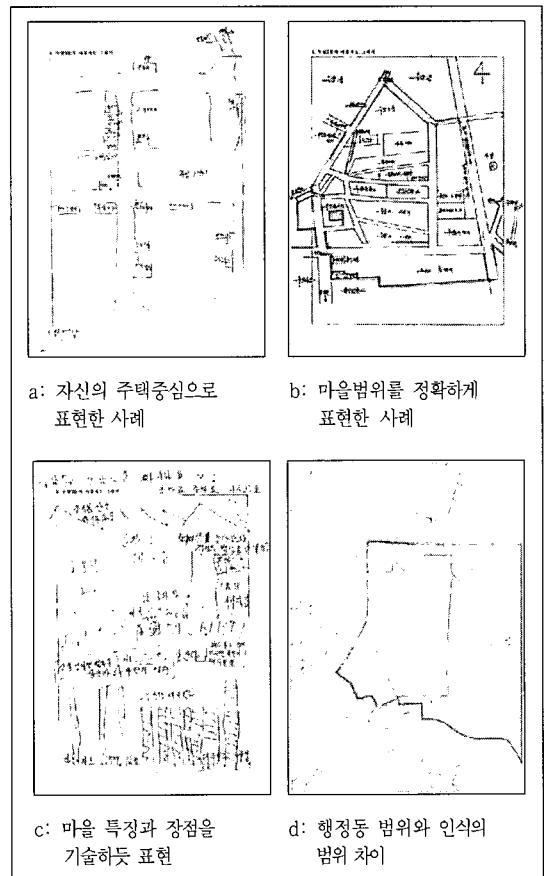


그림 6. 마을지도 그리기의 일부 결과와 인식범위

표 3. 대상마을의 도시 시설과 환경을 구성하는 물적 요소들\*

마을	구성	주택 유형	도로	공 원	학 교	기타 시설
두암 3동		아파트단지(8) 단독주택	서측단: 풍향로 관동: 밤실로 동측단: 제2순환도로	근린공원(2) 체육공원(1) 어린이공원(2)	초등학교(2) 중학교(1)	상업시설(대형마트-3)
용봉동		단독주택지역 아파트단지(11)	관동: 비엔날레로 동측단: 우치로 남단: 신안로, 용봉로 북측: 호남고속도로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10)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2) 대학교(1)	공공시설(북구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선거관리사무소) 문화시설(비엔날레전시장, 민속박물관)
풍향동		단독주택지역	남단: 필문로 서측단: 풍향로 동측단: 동문로	어린이공원(1)	초등학교(2) 고등학교(2) 대학교(2)	상업시설(시장-2, 대형마트-1)
일곡동		아파트단지(23) 단독주택지역	관동: 일곡로 동측단: 우치로 남단: 양일로	근린공원(3) 어린이공원(5)	초등학교(4) 중학교(2)	공업시설(한국전력공사, OB맥주, 두산식품, 로케트정밀, 로케트전기) 공공시설(영산강환경관리청, 일곡도서관) 상업시설(대형마트-3)
임 동		단독주택지역	관동: 서림로 북단: 무등로 남단: 천변우로, 금남로		초등학교(1) 고등학교(1)	공업시설(일신방직, 전남방직) 문화시설(무등경기장) 교량(9)
문화동		아파트단지(5) 단독주택지역 시화가 있는 마을	관동: 각화로 서측단: 동문로 동측단: 풍향로 제2순환도로 입구 호남고속도로동 광주IC 입구	어린이공원(1)	초등학교(1) 중학교(1)	상업시설(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유통시설(화물터미널)
운암 2동		아파트단지 단독주택지역	관동: 북문로, 서암로 남측단: 하남로, 무등로 동운고가도로 경전선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3)	초등학교(1) 중학교(1) 고등학교(3)	문화시설(광주문화예술회관) 공공시설(기상청, 지적공사, 세무서) 교량(2) 상업시설(시장-2)
문흥 1동		아파트단지(11) 단독주택지역	남단: 문흥로 남북측: 문정로, 문산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어린이공원(7)	초등학교(2) 중학교(1)	상업시설(대형마트-1, 시장-1) 교도소

\*: ( ) 안의 숫자는 분포하는 각 요소의 수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에는 구릉지가 우세한 운암2동과 평탄지에 입지하는 임동 주민들의 공간 인식 특성을 사례로 나타내었는데, 인식 범위가 비교적 전역에 걸쳐 있으며 도로나 하천 등이 경계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동은 지역의 경계가 되는 광주천과 교량에 대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무등경기장과 전남방직, 일신방직 등 역사적으로 오래된 시설 지구에 대해 높은 표현빈도를 보이며 마을의 전체적인 공간 인식의 틀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넓은 천변 도로보다

는 지역 내부를 관통하며 역사적으로 오래된 좁은 도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도로를 따라 상업 시설과 주택들이 발달한 시가지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운암 2동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와 간선 국도 등이 통과하며 결정점 역할을 하는 시설물(동운고가도로)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아울러 광주문화예술회관, 중외공원, 비엔날레전시관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 공원이나 녹지가 문화 시설의 인식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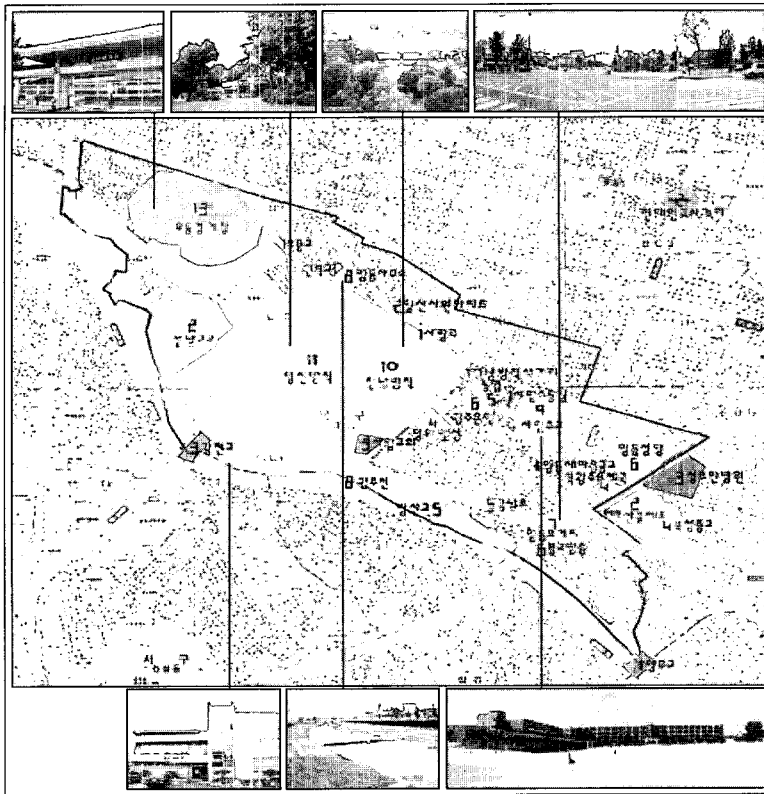


그림 7. 임동 마을지도 그리기에 나타난 요소별 출현빈도(참가자수 20명)\*

\*: 1회: 새마을금고, 유문교, 전남방직 사거리, 서림초등길, 서림로, 원불교, 2회: 나산클레프, 구 전남고교, 전남대 사거리, 일신사원아파트, 3회: 상요한병원, 서림교회, 광천교, 4회: 복성중 학교, 북광주우체국, 평화맨션, 5회: 금남로, 발산교, 농협, 6회: 임동성당, 불교방송, 광주은행, 7회: 임동우거리, 8회: 임동사무소, 광주천, 9회: 서림초등학교, 10회: 전남방직, 11회: 일신방직, 13회: 무등경기장

## 2. 경관 이미지와 공간구조와의 관계와 특징

경관 사진을 지도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요소의 인지도와 공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경관 사진만으로 그 위치를 찾는 것에는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기억에 의존하는 위치와 지도를 매체로 한 공간 인식 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그림 9 참조). 프로그램 참가자간에 의견 교환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매우 국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참가자간의 소통을 통해 위치 단서를 발견해가는 탐구적 행동도 관찰되었으며 그 속에서 부분적인 공유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관 유형 중 공공시설, 공원, 저수지와 같이 주민들이 어메니티 요소로 자주 이용하는 개방적 장소는 위치 확인에서 정확한 결과를 보인 반면, 학교 내 건물이나, 중소 규모의 상업시설, 최근의 경관 변화(공사 현장)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 3. 경관 유형별 카테고리 평가의 결과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1~5점의 척도에 의한 평가 결과는 각 마을별 워크숍 참가자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획득한 점수의 합을 참가자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표 4 참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카테고리 분류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5점 척도로 평가해야 하는 점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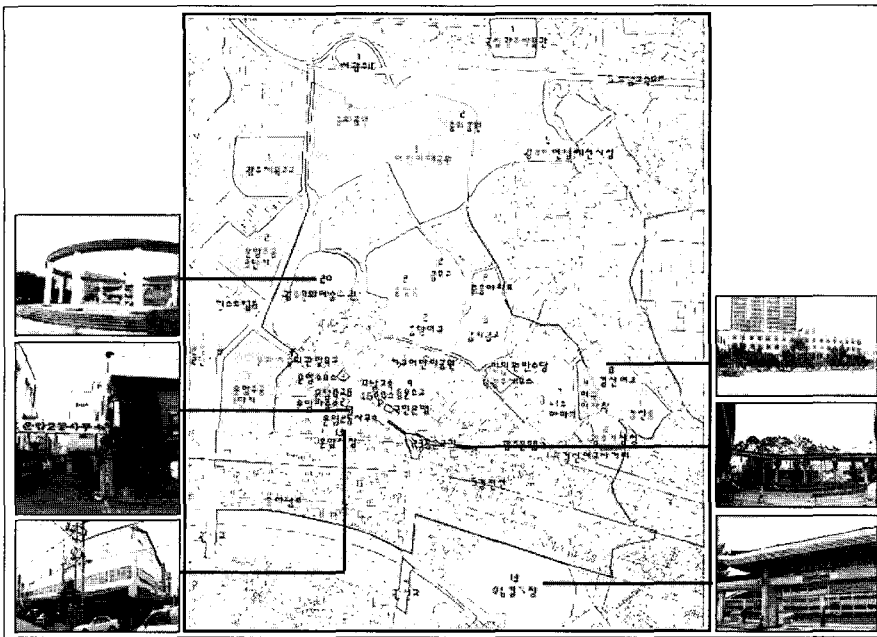


그림 8. 운암2동 마을지도 그리기에 나타난 요소별 출현빈도(참가자수 31명)\*

\*: 1회: 호남고속LG주유소, 만수당 한약방, 서광주IC,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체육고등학교, 경신중학교, 운암주공1단지, 2회: 운암LG주유소, 중흥아파트, 운암주공3단지, 중앙중학교, 금호고등학교, 운암파출소, 광주지방기상청, 중외공원, 지우어린이공원, 3회: 어린이대공원, 문화예술회관앞 육교, 하남로, 광암교, 국민은행, 4회: 북광주세무소, 한국아파트, 경신여고 사거리, 광천교, 5회: 금파고등학교, 비엔날레 전시관, 경전선, 호남고속도로, 운암주공2단지, 6회: 운암육교, 중앙여자고등학교, 프린스호텔, 7회: 대주아파트, 광주은행, 8회: 경신여자고등학교, 9회: 동운초등학교, 13회: 운암시장, 무등경기장, 18회: 운암2동사무소, 20회: 광주문화예술회관, 23회: 동운 고가

하였다. 점수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 빈도로 보면 공공 시설과 도로에 대한 빈도가 높았으며, 자연 요소에 있어서는 공원에 대한 평가 빈도가 높았다. 보행로, 공공 시설, 공원, 학교의 경우 전체 마을 중 70% 이상(6개 마을 이상)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표 4에서 어둡게 칠한 부분), 생활 요인이 크게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마을에 포함된 요소는 아니지만 하천이나 저수지, 공터 등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평가되었는데 공원이나 수림과 같이 자연 오픈스페이스로서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소박하고 정겹다고 생각되는 풍경으로는 공원, 보행로 경관을 위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쾌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풍경은 공공 시설과 학교 등을 주로 평가하였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풍경은 공공 시설과 보행로, 학교 등을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풍경에 있어서는 학교, 공원, 수목 등을 높게 평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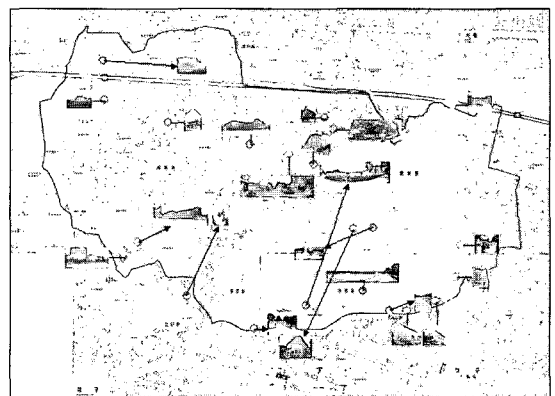


그림 9. 경관자원의 공간위치 대응 결과(용봉동의 사례)

법례: — 행정적인 경계로서의 동의 범위  
○ 경관요소의 실제 위치  
→ 부정확하게 인식되는 요소의 위치 차이(거리와 방향)

다. 학교는 여러 카테고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면서 역사성과 공원 녹지로서의 역할 등 다면적으로 인식되었

표 4. 경관요소에 대한 카테고리 및 마을별 평균점수<sup>a</sup>

카테고리	보존 가치가 있는 풍경								개선 필요가 있는 풍경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쾌적하고 깨끗한 풍경								안전하고 편리한 풍경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T1	T2	T3	T4	T5	T6	T7	T8		
인공요소	주거	단독주택	·	49	35				43	·	·					43	·	20						43	·	28			10	·	18											
		공동주택	·	11	10	63	07	·	·	27	·	·	·	33	09	·	·	·	38	16	15	16	·	89	·	183	186	08	08	19	·	40	·	13	10	27	25	·	·	51	52	27
		빌라			33								105														54															
		전통가옥	67					319																106																106		
		고속도로																53																						30		
	도로	간선도로	62	·	·	19	·	11	33	·	·	27	·	116	·	02	33	30	·	·	·	21	22	·	10	·	81	·	08	09	·	11	19	·	38	·	·	·	·	50	·	
		고가도로							43								20	40																						05	·	
		교차로	·	38	·	05	16	06			138	168	40	51	07	72			·	·	23	02	23	23		·	14	·	·	·	32		·	·	·	45	07	·	21			
		골목길	·	·	·	·	·	·	·	24	·	10	·	57	30	162			71	·	90	·	·	·	·	·	·	13	·	·	·	·	·	171	·	·	·	·	07			
		지하보도							02																																	
시설물	보행로	29	51	45	12	116	85	52	·	29	68	68	100	23	68	52	·	19	34	30	165	18	45	31	40	24	62	55	12	73	75	50	·	19	103	88	33	·	62	74	60	
	공업시설					52							111																													
	문화시설							67																																		
	상업시설	·	78	63	·	09	13	48	·	110	178	35	58	86	·	110	160	19	232	68	·	·	30	55	·	·	54	23	·	116	15	33	·	·	22	13	·	·	09	17	13	
	공공시설	110	19	85	47	34	57	102	23	·	87	20	102	50	36	31	213	·	03	123	54	64	23	26	83	·	87	128	49	68	11	·	139	24	38	28	212	·	51	45	153	
	종교시설	29	·	13	317	36	·	21	·	38	·	68	44	·	02	12	·	19	·	30	135	·	·	·	13	43	11	08	265	·	11	·	·	19	·	·	33	·	09	12	03	
	학교	19	322	148	28	80	02	71	63	·	05	·	12	·	·	·	·	33	10	32	25	14	·	17	79	20	38	105	235	12	09	·	12	43	38	78	60	05	·	11	07	·
	구조물	구조물	86	11	10	·	·	40	17	103	43	78	73	137	·	149	33	73	33	·	·	72	·	19	37	·	84	78	02	·	29	47	48	30	15	80	·	09	17	23		
		교량							79																																	
	광장	교동광장							12																																	
공사장			24										119																													
자연요소	녹지	43																																								
	정원수목	105	32	133	12	32	·	·	53	·	13	09	·	·	·	·	200	27	133	16	·	15	26	90	33	78	60	12	07	·	·	17	152	49	13	·	·	·	·			
	공원	243	216	158	172			64	133	110	03	03	74																													
	등산로	86																																								
	담장	·	·	·				110																																		
	공터	·	·	23				10	·	219		275																														
	하천																																									
기타	저수지																																									
	농지																																									
	가로수길																																									
조형물	전경	43																																								
	야경	·																																								
	조형물	67	111	10																																						

<sup>a</sup>: 평균점수는 평가치의 합을 참가자수(N)로 나눈 수치이고, 모든 경관이 1회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점수를 얻지 못한 경관은 ·로 표시하고 해당 마을에 제시되지 않은 경관은 공백으로 표시

<sup>b</sup>: T1: 두암3동(N=21), T2: 용봉동(N=37), T3: 풍향동(N=40), T4: 일곡동(N=43), T5: 임동(N=44), T6: 문화동(N=47), T7: 운암2동(N=42), T8: 문흥1동(N=30)

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풍경에서는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을 위주로 평가하였는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관심이 높은 만큼 경관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상업시설 이라고 하더라도, 수목 식재 등 주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표 5 계속)

구분	대상마을	두암 3동	용봉동	풍향동	일곡동	임동	문화동	운암 2동	문흥 1동
	자연요소	수립							
수목		D(23.3), c(20.0)		C(13.8)					A(25.3)
공원		A(24.3), C(26.2), E(21.4)	D(17.8), c(27.8), e(8.7)	a(15.8), e(8.8)	a(17.2), d(10.0)			C(11.7), d(7.1)	a(13.3), c(13.0), d(11.3)
등산로		e(17.1)						b(16.0), D(16.7)	
담장							a(14.0), d(6.8)		
공한지		B(21.9)		b(27.5)					
하천									
저수지			B(27.0)						
농경지			A(36.6)						
기타요소	가로수길			A(21.0)					
	전경								
	야경								
	조형물								
	부정적경관								
	조명								

\*: A: 보존 가치가 있는 풍경, B: 개선할 필요가 있는 풍경, C: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D: 쾌적하고 깨끗한 풍경, E: 안전하고 편리한 풍경 (대문자 표기는 해당항목에서 가장 높은 카테고리, 소문자 표기는 두 번째 높은 카테고리, ( ) 내 수치는 평가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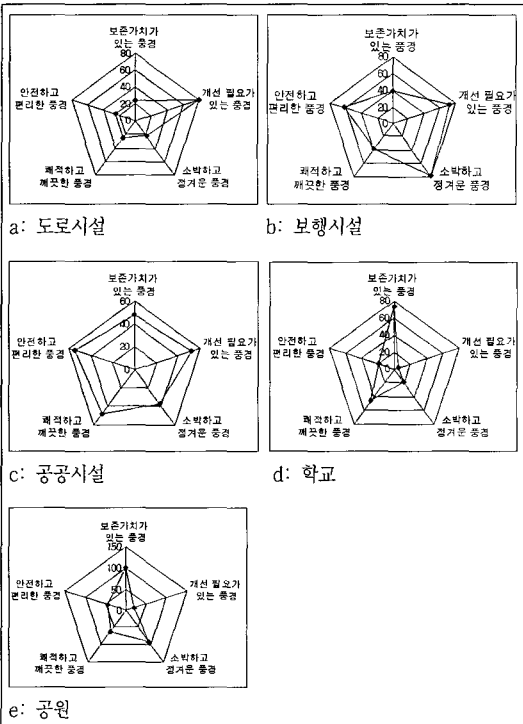


그림 10. 평가요인별 경관유형의 종합결과

에 치우친 편이었으며, 공원은 전체적으로 어메니티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마을 현황을 경관 유형별 사진으로 수집한 후, 이를 매체로 마을의 공간 구조와 경관 인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으며, 그를 통해 마을 생활 공간이 주민들에 의해 풍경으로 공유되는 요인을 고찰하여 주민참여형 디자인에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마을의 공간 구조와 경관 위치에 관한 인식적 공유: 마을지도 그리기 및 경관요소의 위치 대응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주민들이 인식상 두드러지는 요소는 공원, 공공시설, 보행로, 학교 등 주민들이 일상 활동을 통해 접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공공적 경관이 공통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인공 시설이기 때문이라거나 주변과 구별되는 자연 경관이기 때문에 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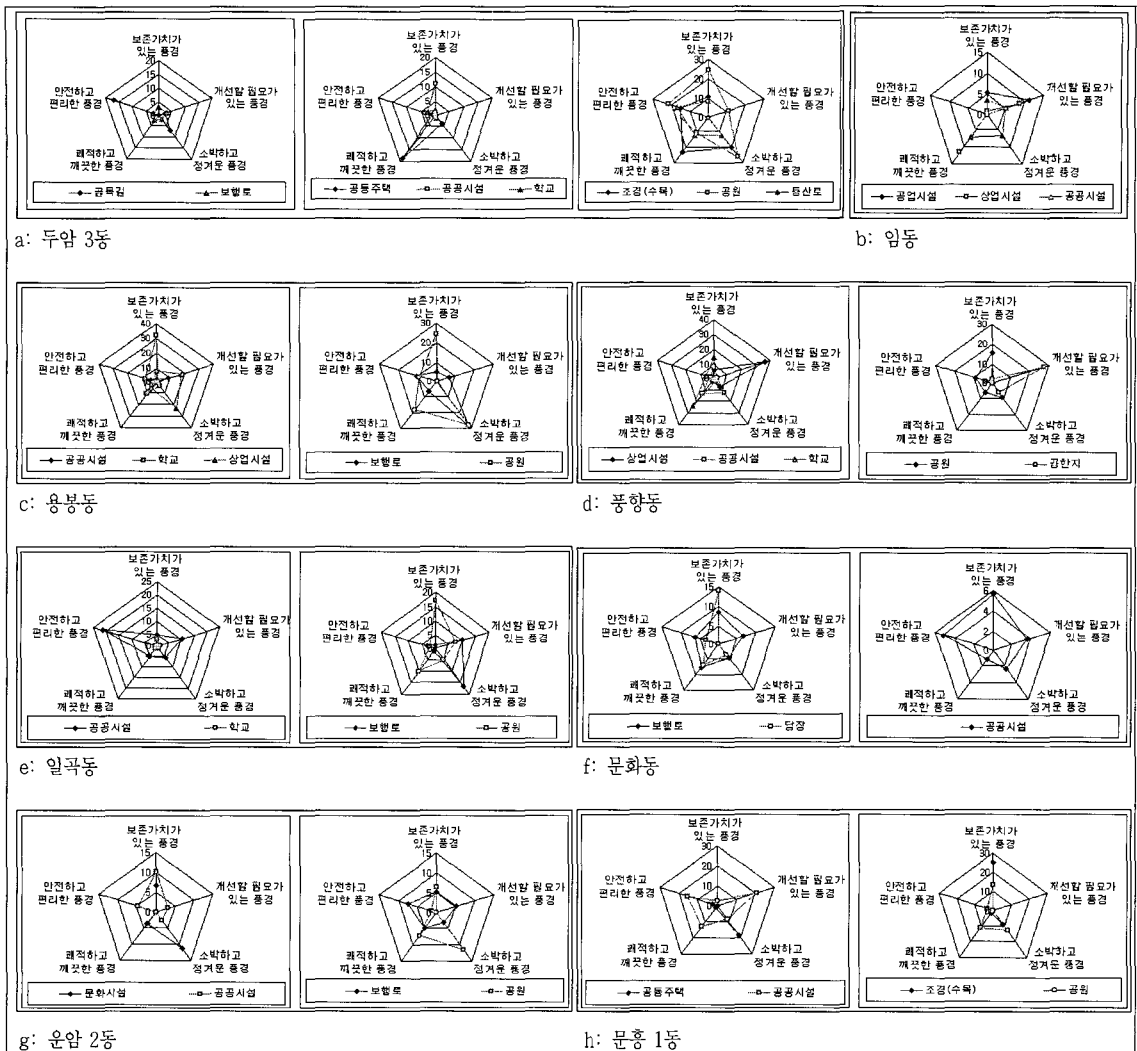


그림 11. 카테고리별 주요 경관요소의 마을별 평가치 분포

러진다는 시각적 요인보다는, 마을의 성립과 경관 형성 과정 등 역사문화적 공유성에 바탕을 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경관 요소의 출현 빈도나 표현상 나타나는 표면적인 공통성보다는 워크숍 과정 속에서 마을의 유래와 경관 경험에 대해 주민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그러한 공유성 형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 중에는 경관 사진을 매체로 자신의 마을의 일상적 환경을 다시 봄으로써 새로운 발견의 경험이 되었음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선도로나 대표적 공공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은 쉽게 인식되는

경관이었지만 마을 범위 밖의 도시 규모적 경관 자원(문화예술회관, 경기장, 시가지 주변산 등)까지 마을의 경관 요소로 보려는 경향도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풍경으로서의 공유보다는 공간적 단서로 파악하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신체적인 스케일에서 접하기 쉬었던 보행로, 골목길, 소규모 자연(수목) 등은 공간적 공유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풍경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대표적인 경관 유형의 카테고리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공유성: 유형별 경관에 대한 평가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원, 공공시설, 보행로에 대한 평가 빈도 및 어

매니티 요소로서의 긍정적 평가는 전체적으로 높았다. 마을별 차이는 주거 유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특히 아파트 위주의 마을과 단독주택 위주의 마을에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어매니티를 발견하고 있다거나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경관요소에 대해서도 공유성이 높게 나타나는 양면성 등은 시각적 측면 이상으로 잠재력이나 계획적 정비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어떠한 경관 요소에 대해 인지도가 높고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둔 비교적 단순한 인과 관계이지만, 단지 경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보다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워크숍의 진행과 병행하면서 풍경 공유의 잠재성과 어매니티성을 주민 그룹이 발견해가는 과정도 중요시하였다. 생활자를 경관 인식 주제로 하고 일상적 경관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실험적 조건에서의 자료 획득과 객관성 도출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실험적 조건보다는 마을 풍경을 탐험한다거나 게임 방식으로 마을 경관을 평가해보는 과정이 마을 경관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공유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워크숍 참여자의 구성에서 주민자치위원의 비율이 높았다거나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점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사고를 보이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생활자의 입장에서 마을을 구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40대 이상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하 세대와 마을의 일상경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어려웠던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주 1. 여기에서 풍경 공유성이란 용어는 일상성과 생활성을 포함하는 보편적 개념을 갖는, 시각적 기반의 경관에 대한 공동적 인식 특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 2. 참여연대의 '아파트 공동체 운동 워크숍'과 '아파트 시민학교' 개설, 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마을 만들기 시민학교(1989년),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의 '견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주민참여 워크숍(1999년), 녹색교통운동과 금호·행당·하왕기획단, 마을과 사람을 생각하는 모임이 주최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1999년), 녹색연합의 '생태마을 학교', 지역 YMCA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주민참여 삶터 가꾸기'를 통한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2000년)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정석, 1999).

주 3. 광주YMCA의 좋은동네 시민대학은 2000년 학습공동체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2000년 「좋은 동네 만드는 사람들,

을 창립하고, 2000년 사직동 좋은 동네 만들기 워킹투어, 2001년 양림동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거쳐 2002년 「좋은 동네 시민대학」으로 주민자치 및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과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2년 좋은 동네 시민대학 전문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해 말 최초로 동구 지산2동의 시민대학 강의가 이루어진 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으로부터 강의신청을 받아 오치1동을 비롯한 4개동, 2004년 전반기부터 두암3동, 용봉동, 곡성읍 3개 지역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하였다. 「좋은 동네 시민대학」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동네의 발견이라는 기초적인 부문에 기본시점을 두고 있는데,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교육과 학습은 주민,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연계되어 마을의 이해를 위한 공유의 장이라는 계기를 마련하며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광주 YMCA 좋은 동네 만드는 사람들, 2001).

- 주 4. 광주광역시 북구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팀'을 신설한 후 2002년 주민자치과 설치 이후 2004년 마을 만들기 팀 설치,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적 주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선구적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26개동에 105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광주광역시 북구, 2004).
- 주 5.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부녀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동 평균 38명으로, 남성:여성의 비율은 4:6이었다.
- 주 6. 임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부터 지역간 교통로 주변과 광주천변의 농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로서 근대기 방직공장, 경기장 등이 들어서며 시가화가 이루어졌다. 풍향동, 용봉동은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문화동, 문흥1동, 일곡동은 1980년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단지로 시가화된 지역들이다.

## 인용문헌

1.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실(1999) 광주 북구 지리지. 광주광역시 북구.
2. 광주광역시 북구(2004)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 북구 5개년 계획(2004~2008년). 광주광역시 북구.
3.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2003) 무드리 향토사료집 III: 무드리 12호.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4. 광주YMCA 좋은 동네 만드는 사람들(2001) 좋은 동네 만들기: 왜 공동체인가. 광주: 새날출판사.
5. 김찬호(1997) 후기산업사회의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일본 토요나카시(豊中市)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용연(2004) 마을가꾸기의 현황과 비전-지방자치와 마을 만들기. 광주전남 비전21 40: 7-18.
7.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1):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8. 조동범(2004) 마을 가꾸기에 있어서 시민대학의 역할. 광주전남 비전21 40: 61-71.
9. 延藤安弘(1997) まちづくり讀本 김찬호(역),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마을 만들기. 서울: 황금가

- 지, 1997.
10. 渡辺 俊一(2004)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이진호(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4.
  11. こどもとまちづくり研究会(1996) まちづくり読本 2 こどもとまちづくり - 面白さの冒険. 東京: 風土社.
  12. 渡辺 俊一, 太田 守幸(2001) 市民版まちづくりプラン 実践ガイド. 京都: 学芸出版社.
  13. 三船 康道, まちづくりコラボレーション(1998) まちづくりキーワード事典. 京都: 学芸出版社.
  14. NPOまちづくり研究会(1997) まちづくり読本 3 NPOとまちづくり - 明日へジャンプ!. 京都: 風土社.
  15. 五十嵐敬喜(2002) 美しい都市をつくる権利. 京都: 学芸出版社.
  16. 佐々木 葉二, 宮城 俊作, 登坂 誠, 三谷 徹(1995a) 参加のランドスケープデザイン 1. Japan Landscape 34: 45-51.
  17. 佐々木 葉二, 宮城 俊作, 登坂 誠, 三谷 徹(1995b) 参加のランドスケープデザイン 2. Japan Landscape 35: 41-49.
  18. 헨리-사노프(2000)まちづくり게임 環境デザインワークショップ. 京都: 晶文社.

---

원 고 접 수: 2006년 3월 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6년 4월 28일  
 3인익명 심사필